**운젠 온천 역사 탐방 코스： 기리시탄 탄압**

이 십자가는 1600년대 초기에 이곳에서 처형된 이들을 기리는 기리시탄 순교비입니다. 메이지 시대(1868년-1912년)에 세워진 이 순교비는 1620년대부터 1630년대에 운젠에서 고문을 당해 죽은 33명의 기독교인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운젠 지옥 온천의 끓는 물 속에서 고문을 당했던 그들의 고난은 메이지 시대 이전 일본에서의 기독교 종언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16세기 중반에 처음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1580년대가 되자 기독교는 서양이 많은 일본인을 자국 종교로부터 개종시켜 침략과 식민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악한 종교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1587년 선교사 금지와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책형이 이루어진지 불과 10년 후,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에 의한 박해를 받았고 기독교 포기를 강요당했으며,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근대 이전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이곳 시마바라반도에서 종언을 맞이했습니다. 기리시탄 다이묘 아리마는 대대로 이어오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빼앗겼고, 1616년 마쓰쿠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쓰쿠라는 새로운 성을 건설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역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벌을 제정했습니다. 쌓이고 쌓인 반감은 마침내 기근으로 인해 불붙어 1637년 12월 시마바라・아마쿠사 잇키가 일어났습니다.

반도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손에 무기를 들었고, 낭인들과 아마쿠사 제도에 있던 다른 기독교인 농민들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규슈 전체에서 12만 명이 넘는 막부군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왔습니다. 1638년 4월까지 수만 명의 기독교인 남녀와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